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초등학교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지도교수 양 진 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김 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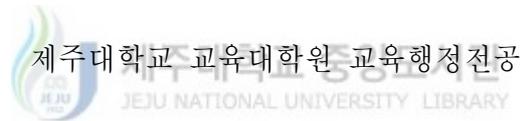
2005년 8월

제주도 초등학교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지도교수 양 진 건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4월 일



제출자 김 윤 수

김윤수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제주도 초등학교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김 윤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도교수 양 진 건

이 연구는 제주도 영재교육 정책과 영재 학급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및 분석하여 보다 나은 영재 교육의 추진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 기술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제주도 영재 학급 영재 교육 정책 담당하는 장학사, 영재 학급 강사, 대학에서 실시하는 영재 교육원 담당하는 교수, 영재 학급생과의 면담 자료와 영재 교육 관련 공문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영재교육 정책 및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 담당 강사 연수를 대학과 연계하여 연수의 기회를 확대시킨다. 기본 연수를 이수한 영재 학급 담당 강사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심화 연수를 받는 데에는 인원 수 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정책 추진 기관은 다르지만 도교육청은 영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연수의 기회를 마련하여 좀더 영재 학급 담당하는 강사들이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영재 교육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 및 영재 담당 교사들의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적 환경은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자료 개발 프로그램 투입과 학습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영재 교육을 담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당해야 할 교사들을 전문적인 영재 교육의 안목의 신장을 위해서는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영재 아동의 선발이다. 영재아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발 자격을 지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영재아의 행동 특성인 정의적인 영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정의적인 영역은 평상시에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관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이므로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영재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와의 영재아의 행동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재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

넷째, 영재 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평가이다. 창의성을 개발하고 잠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매년마다 개발되는 학습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투입을 시키고 있다.

학생들이 주말에 이루어지는 영재 학급 수업을 단순히 교과 외의 심화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정도로 생각하여 주어지는 과제물 해결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다 학습에 참여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연간 계획에 평가 영역을 첨가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간의 의견 교환의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05년부터 영재교육연구회를 조직을 하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의 웹 지원으로 도내의 영재학급 운영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영재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활성화시키면 강사간의 의견 교환 및 정보 수집에 앞장서게 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교재 개발까지 이루어진다.

< 목 차 >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3
3. 용어의 정의	3
II. 문헌 고찰	4
1. 영재의 개념과 판별 절차	4
2. 우리 나라 영재교육 정책	9
3. 우리 나라 영재교육기관	13
4. 제주도 영재교육 운영 현황	14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20
1. 연구 방법	20
2.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22
IV. 자료 분석 및 결과 해석	25
1. 제주도 영재교육 정책의 문제점	26
2. 제주도 영재 학급 운영의 문제점	39
3. 제주도 영재교육 정책 및 영재학급 운영의 개선 방향	45
V. 결론 및 제언	52
1. 결론	52
2. 제언	54
<참고문헌>	56
<부록>	60

<표 목차>

<표 II-1>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의 추진 경과	10
<표 II-2> 영재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11
<표 II-3> 영재 선발 자격 조건	16
<표 II-4> 영재 선발 방법	17
<표 II-5> 2005학년도 영재 교육 추진 계획	18
<표 III-6> 면담 대상자에 대한 기초 자료	24
<표 IV-7> 2005년 영재 학급 운영비 계획	29



<표 목차>

<부록 1>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 계획	60
<부록 2>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영재 교육 추진 계획	62
<부록 3> 영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및 인프라 구축	64
<부록 4> 부산과학고 영재 학교 전환 추진 현황	66
<부록 5> 2002년 전국 영재 학급 운영 계획	67
<부록 6> 2002년 전국 영재 교육원 운영 계획	70



I. 서 론

1. 문제 제기

최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력 양성에 모든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잠재적 영재를 발굴, 집중 육성하여 차세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여러 선진국들은 잠재 영재를 포함한 고급 인력 개발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데 영재 학급, 월반, 조기진학/졸업, 지역별 공동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등을 통하여 각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여러 분야의 다양한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영재 교육의 필요성이 개인적으로 잠재 능력의 계발 및 향상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발전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영재 교육의 필요성은 개인의 능력 향상 및 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잠재된 영재성이 소멸 되지 않고 능력을 향상 시켜서 자아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영재의 능력을 조기에 파악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통하여 차세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획일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보다는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지적 재산권 같

은 지식 기반의 기술이 중요한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들 영재 인력의 능력 계발과 활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영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1996년부터 영재교육체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이 추진되어 2002년까지 각종 정책 연구 및 교수·학습 자료, 영재판별도구 등이 개발되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2차 5개년 계획이 수립·추진 중에 있다. 국가적으로는 영재교육진흥법(2000)이 발표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부와 부산광역시 교육감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부산과학고가 국내 유일한 영재학교로 지정되어 2003년에 개교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는 일선 학교 내에 영재학급이 설치되어 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영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영재학교를 시범 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영재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영재 교육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영재성의 발굴보다는 선발을 강조함에 따라 잠재적 영재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교원, 판별도구, 프로그램 등 지원 체계가 취약하여 내실이 있는 영재 교육보다는 형식적인 영재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재 아동들의 잠재된 창의력과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여 자아실현 및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재 교육의 정책과 영재 학급에서의 영재 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재 교육의 추진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목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영재 아동들의 잠재된 창의력과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여 자아실현 및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재 교육 정책과 영재 학급에서의 영재 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재 교육의 추진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시키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영재교육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제주도 영재 학급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제주도 영재교육 정책 및 영재 학급 운영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가. 특수 교육

시청각장애·지체부자유·정신지체 등으로 통상의 학교나 일반학급에서 교육의 기대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하여 특별한 학교·학급을 마련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과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영재 교육은 선천적으로 우수한 재능이나 소질을 타고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하여 마련한 특수 교육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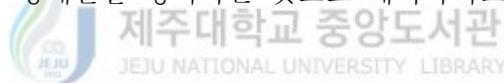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광의적인 측면에서 특수 교육에 영재 교육도 포함한다.

II. 문헌 고찰

1. 영재의 개념과 판별 절차

가. 영재의 개념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 교육 전문가들은 영재를 매우 높은 수준의 극소수의 학생들로 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좀더 폭넓게 영재들을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 지능에 의한 개념

영재성에 관한 연구는 지능 이론가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지능 이론가들은 모든 사고 과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인 지능을 영재성의 핵심으로 보았다.

Terman은 Stanford-Binet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140이상인 자, 또는 동일 연령 집단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자를 영재로 보았다(Davis & Rimm, 1985). 그러나 지능 검사 자체의 신뢰도, 타당도 등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였고, 지능과 같은 단일 요인이 아닌 다요인적 입장에서 영재를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다요인적 영재성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Guilford(1967)는 영재성의 개념을 다요인적 지능으로 설명하였는데, 인간의 지능은 단일한 일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

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영재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2) Renzulli와 Reis의 개념

Renzulli와 Reis(1997)는 인류 역사상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평균 이상의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Renzulli는 영재는 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 세 가지 특성에서 모두 대단히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Renzulli에 의하면 영재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성 모두가 뛰어날 필요는 없다. 각 특성이 적어도 상위 15%이내여야 하고, 그 중 한 요인에서는 적어도 상위 2%이내에 속하는 사람을 영재라고 보았다.

Renzulli와 Reis의 영재성 개념은 영재의 판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전통적 기준에 의한 소수의 영재 판별을 지양하고, 가능성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영재성은 학생들이 특정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수행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확인된다. 그러므로 판별은 일회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속적인 심화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행동과 산출물을 관찰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과제 집착력과 같은 비지적 요인을 영재성의 구성 요인 중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지적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비지적 요인이 인간의 창의적

활동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또한 영재의 판별에 있어서 창의성이 판별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3)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의 정의

영재교육진흥법(2000)에서의 일부 개정에서 사용하는 ‘영재’의 정의에 의하면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취학자 중에서 일반 지능, 특수 학문 적성, 창의성 사고 능력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영재판별 기준에 의거 판별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영재성은 매우 복잡하고 상대적인 현상이고 개념이다. 영재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완전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 영재성은 서로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며 매우 다양한 학문(학문, 예술, 체육, 직업 영역 등)에서 나타난다.

영재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각각의 이론에서 다루는 능력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여러 학자들 간에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면 영재성은 능력이 뛰어난 사실을 지칭한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영재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영재의 정의를 일반 평균지능보다 높은 지능, 특수 분야의 뛰어난 재능, 창의성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뛰어난 자로 본다.

나. 영재 판별의 절차

영재 판별의 절차는 다양하다. 판별 절차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도 다양하

고, 여러 나라와 학교에서 사용되는 실제 판별 절차도 다양하다. 어떤 영역의 영재를 판별하는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단계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각 검사간의 비중을 고려한 다음, 일회적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단계적인 절차에 따른 영재 판별 절차는 Fox(1976), 조석희(1996) 등이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별 방법을 더 추천하고 있다.

1) Fox의 판별 절차

Fox(1976)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제 1 단계 : 선발 단계로서 집단 지능 검사와 지명, 관찰법 등을 병행하여 영재성이 엿보이는 학생을 선발한다.

제 2 단계 : 변별 및 판별 단계로서 전문가와 교육학자, 심리학자 등이 중심이 되어 제반 평가 활동을 실시한다. 1차 선별된 학생들에게 개인 지능 검사, 창의성 검사, 학문적성 검사, 표준화 성취 검사 등을 실시하여 영역별로 영재를 판별한다.

제 3 단계 : 정치(定置)단계로서 1, 2차 단계를 통해 영재아로 선발된 학생들을 영역별 영재 프로그램에 정치하고, 학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한다.

2) Renzulli의 판별 절차

Renzulli는 각종 표준화된 검사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영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표준화된 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일부 선발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교사의

지명과 심화 학습 과정 및 결과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의 관찰에 의한 추천을 통해서 판별되는 학생의 비율을 정해 좋지 않으면, 대부분의 학교나 교사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도 결국 교사의 지명이나 추천은 무시하고, 검사 점수만을 기준으로 영재를 판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제 1 차 판별 : 전체 학생 중의 15-20%를 선정한다. 대상 학생의 1/2은 표준화 검사에서 92% 이상의 성취를 보인 학생을 선정한다. 나머지 1/2은 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된 학생들의 대부분과 자신이 영재라고 추천한 학생, 그리고 지난 해에 담당교사가 추천한 학생들 중 판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학생들로 선정한다.

제 2 차 판별 : 1부 심화 학습 활동과 2부 심화 학습 활동에 참여한 후, 학생 스스로 자신의 영재성을 판정한다. 2부 심화 학습 활동을 마친 후, 3부 심화 학습에 더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대체로 전체 학생의 5% 정도가 3부 심화 학습까지 참여한다.

이 방법은 판별의 모든 부분을 교사가 결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특성과 수준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점이 특별하다.

3) 조석희의 판별 절차

조석희(1996)는 과학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제 1 단계 :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에 대한 누가 기록 및 관찰 내용에 의해 추천한다.

제 2 단계 : 표준화된 지능 검사, 적성 검사, 흥미 검사, 창의성 검사, 학업 성취 검사 실시한다.

제 3 단계 : 전문가에 의한 문제 해결 과정의 관찰 평가를 한다. 각 영역의 전문가가 동원되어 학생들의 실연 장면, 실험 과정, 이미 완성된 산출물을 직접 관찰,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 4 단계 : 교육 프로그램에의 배치 및 관찰한다. 일단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통하여 영재 프로그램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계속 영재는 아니다. 프로그램의 이수 과정, 결과를 계속 관찰하여 영재성을 평가한다.

2. 우리 나라 영재교육 정책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2002)의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나라 영재 교육의 추진 배경 및 경과와 영재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 과제별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추진 배경

2001년 12월 17일 확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인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하여 창의적이고 특별한 재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인재관리시스템 구

축하는 데 있다.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의 세부 정책 과제는 영재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영재교육 추진, 영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및 인프라 구축이다.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공교육차원에서 국가고급 인적 자원의 육성 및 영재 교육의 기회 확대와 활성화에 도모하였다.

나. 추진 경과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경과는 아래 <표 II-1>와 같다.

<표 II-1>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의 추진 경과

년 월 일	추진 내용
1995. 5. 31.	교육개혁위원회 대통령보고서에 영재교육강화 제안
1997. 12. 13.	교육기본법에 영재 교육 의무 조항 규정
2000. 1. 28.	영재교육진흥법 제정·공포(2002. 3. 1 시행)
2001. 5. 7.	대통령주재 인적자원분야 관계 장관간담회 개최
2001. 8. 30.	영재 교육 정책 방향 인적 자원개발회의 실무회의 통과
2001. 9. 19.	과기부의 과학영재고 운영 계획 인적자원개발회의 의결
2001. 11. 14.	과기부장관 및 부산교육감간 영재 학교 협약 체결
2001. 12. 17.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 확정
2002. 4. 8.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다. 영재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우리 나라 영재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 목표,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II-2>와 같다.

<표 II-2> 영재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p>정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고급인적자원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개인의 잠재적 창의성과 능력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 도모
<p>영재교육대상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과학, 예·체능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가진 자(교과 성적 위주가 아닌 특정 분야 소질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선발) ◦ 여건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p>추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차원에서 영재 교육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교육 과열 예방 등 우리 현실에 우리 현실에 적합한 시행체제 구축 ◦ 영재교육기관별 특성화에 따른 영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학교는 소수정예의 고급인력 육성을 목표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운영 *부산과학고를 시범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 -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은 각 분야 영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위하여 적극 활성화 ◦ 영재 교육 추진을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교수·학습자료, 판별도구 등의 지속적 개발·보급

라. 영재교육 정책 과제별 시행계획

영재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하는 과제인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영재 교육 추진, 영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및 인프라 구축을 2002년도 추진계획과 2003년 이후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002년도에는 공교육차원의 영재교육시행을 위한 법령 체계를 완비함과 동시에 ‘협약에 의한 영재학교 운영’ 등 정부 부처간 참여와 협조에 의한 영재교육 시행 모델을 정립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영재교육진흥 종합 계획」을 토대로 영재 교육 정착 및 관계부처의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재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정책 과제를 2002년도 추진계획과 2003년도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2)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영재 교육 추진

2002년에는 영재 학교 개교 준비 및 영재 학급·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단계적 설치를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영재 교육을 추진하고 2003년도 이후에는 영재 교육기관·분야의 확대 및 고등교육 기관과 경계를 통한 영재 교육의 지속성 유지를 추진하는데 있다.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영재 교육 추진을 2002년도 추진 계획과 2003년도 이후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3) 영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및 인프라 구축

2002년도에는 영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영재 교육기관의 우수 교원 확보, 교육여건 개선 등 영재교육 추진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하고 2003년도 이후 교육여건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하는데 있다.

영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및 인프라 구축의 과제를 2002년도 추진계획과 2003년도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3.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진흥법(2000)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영재학급 배너방(2004)에 탑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재교육기관의 구분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재 학교

정규 교육과정인 전일제 학교 형태의 영재교육기관이며, 부산과학고등학교만 영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산, 시설, 설비의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재 학교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학교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비정규 교과교육활동으로서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식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교육감 재량으로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은 운영권자에 의해 구분된다. 즉, 운영권자가 교육감, 교육장이면 영재교육원이고 운영권자가 초·중·고등학교장이면 영재학급이다.

4. 제주도 영재교육 운영 현황

영재학급 영재교육담당자회의자료(2003, 2004, 2005)와 제주교육대학교초등과학영재교육원(이하 영재교육원) 사이트의 탑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교육청 영재학급(이하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 대한 시작 배경, 영재 선발 과정 및 운영과의 비교, 영재 학급 설치 변화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주과학영재교육원의 시작

1998년도부터 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과학 영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에 12개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제주 지역에는 2000년 6월에 제주교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제주대학교에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설치를 하였다.

제주교육대학교에서는 과학교육연구소가 주관하여 초등학교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초등 수학반, 초등 과학반, 초등 정보반을 개설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주중에는 주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제주교육대학교초등과학영재교육원, 2004)

나. 제주도교육청 영재학급의 시작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산하에서 2003년부터 우선 수학, 과학 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초·중·고교 영재학급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육성시키기 위해 영재 교육이 시작하였다.

다. 영재 학급 설치 변화

2003년부터 영재학급이 설치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세 지역 교육청의 중심으로 각각의 중심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하였다. 영재 선발 수학/과학 분야에서의 영재 학급 설치 학교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2년 동안은 제주시 지역에서는 신제주교, 삼성교, 제주동교로,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서귀중앙교, 서귀포교로 북제주군 지역에서는 한림교, 함덕교이다. 2005년에는 영어 영재 선발하면서 새롭게 영어 영재 학급도 설치하게 되었다. 2005년의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 학급 설치된 학교를 살펴보면 제주시 지역은 신제주교, 삼성교, 제주북교로 선정하였고,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서귀북교와 동홍교, 북제주군 지역에서는 한림교, 함덕교로 영재 학급이 설치하였다. 북제주군 지역에서는 지역 특정상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 학급 설치 학교가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서귀포시 지역에서의 영재

학급 설치는 두 학교가 전부 변경되었다(영재교육담당자회의자료, 2003, 2004, 2005).

라. 영재 학급과 영재교육원에서의 운영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영재 학급과 영재교육원에서의 영재 선발 과정 및 운영을 영재 선발 자격, 선발 방법, 교육과정 운영 시간 수로 구분하여 영재교육담당자회의 자료(2003, 2004, 2005)와 초등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의 자료 탑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 선발 자격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영재 학급과 영재교육원에서 영재 아동 선발 자격 조건에 대해 아래 <표 II-3>와 같다.

<표 II-3> 영재 선발 자격 조건

선발 기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대상	5·6학년	3·4학년
2003 ~ 2004년	수학, 과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 (학년별 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년별 총 학생수가 100명이상인 학교 - 학년수 100명 단위로 각 분야별 3명 추천
2005년	수학, 과학 성적이 뛰어나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재적수의 7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년별 총 학생수가 100명미만인 학교 - 각 분야별 3명 추천
선발인원수	학급당 20명 이내	각 분야별 20명 이내

2) 선발 방법

영재 선발 방법에 있어서는 영재 교육원에서는 원서를 접수시 교사의 추천서를 작성하게 한다. 추천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아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소견서와 같다. 선발 방법에 있어서도 지필평가와 면접의 비중을 달리하여 문제해결력 측정하는 지필평가와 아동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으로 선발한다.

이에 반해 영재 학급 아동 선발에 있어서는 지필평가 결과 점수의 합산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동을 선발하는 즉, 일회적인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음을 아래의 <표 II-4>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II-4> 영재 선발 방법

영재 학급 영재교육원(초등부)			
구분	영재교육원(초등부)		영재교육원(초등부)
선발시험	영재판별검사	선발시험	지필평가
	지필평가(수학, 과학)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판별검사 및 지필평가의 점수의 총합계의 성적순으로 선발함.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출제한 문제로 평가함. 영재판별검사는 영재성과 창의성 검사 지필평가는 문제해결력과 사고력 및 탐구 기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필평가(80%), 면접(20%) 배점으로 둠. 자체적으로 평가문제를 출제 지필평가는 문제해결 문제 출제 면접은 각 분야별로 문항을 개발하여 심층면접을 함. 서류 심사부분에 교사 추천서가 있음. 	

3) 교육과정 시간수

영재학급에서는 5·6학년 대상으로 수학, 과학 통합하여 교육과정 시간수를 살펴보면 2003년에는 80시간, 2004년은 100시간이다. 2005년에는 5학년, 6학년으로 구분하여 수학, 과학 통합 운영이 240시간으로 각 학년의 분야별 교육과정 시간 수는 12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재교육원에서는 초등수학, 초등과학, 초등정보 각 분야별로 10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4) 2005학년도 영재교육 추진 계획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영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영재 교육의 추진계획은 아래 <표 II-5>와 같다(영재교육담당자회의자료, 2005).



<표 II-5> 2005학년도 영재 교육 추진 계획

구분	필요성	비고
사이버영재교육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소외 계층을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 기회 확대 영재들의 잠재 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추천을 받은 상위 5% 학생에게 자율학습형 동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과 학급배정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도서 지역과 도내 동서쪽 소재 소규모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배정형으로 별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고장에서 체험하지 못 	

제1회 자연 탐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는 자연 환경탐사를 통하여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신장 유관 기관 방문을 통하여 지적 호기심 충족 	
제1회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풀이식 영재 교육에서 벗어나 영재들의 과제집착력 및 문제해결력 신장 우수한 창의적산출물발표회를 통하여 창의적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 발굴 및 능력 개발 	
영재교육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 교육에 대한 홍보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영재교육간의 정보 공유로 영재교육의 내실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주소 : http://211.248.116.175/gifted
영재교육연구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에 대한 우수 교수·학습 자료의 발굴 및 공동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 초·중등 영재학급 담당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 모임 활성화로 창의적인 교육풍토 조성 	
2006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적 가능성이 큰 영재들에게 영재 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시험 전형 : 재적 학생수의 20% (초등5~중1학년) ○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재적 학생수 80%전원 (수학·과학:10점, 외국어 5점)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영재 아동들의 잠재된 창의력과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여 자아실현 및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재 교육의 정책과 영재 학급에서의 영재 교육의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재 교육의 추진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시키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2년 동안의 영재학급 담당하는 강사로서 영재학급 학생 선발로부터 수료할 때까지 영재 학급의 운영에 참여하고 관찰하였으며 영재 학급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졌다. 이에 따라 문화 기술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영재 학급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좀더 영재학급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각 개인의 의견을 녹취하면서 자료 분석을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영재 학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원에서의 운영과 비교하면서 영재 학급 운영의 정착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기법이 있다.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이다.

참여관찰은 문자 그대로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 세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심층면담은 양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조적 면담(structured interview)과 구별된다. 구조적 면담은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면담자와 피면담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한 닫힌 형태의 면담이다. 이 면담은 질문지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면담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그와 달리, 문화기술적 심층면담은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면담자-피면담자의 관계와 면담의 상황적 유동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열린 형태의 비구조적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이다. 구조적 면담이 연구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구조적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상호 협력하여 면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비구조적 면담과 구조적 면담을 조화를 이루면서 면담자와 심층 분담을 하였고, 또한 2년 동안 영재 학급을 담당하는 강사였으므로 참여 관찰을 통해 영재 학급의 운영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영재 교육을 위한 영재 학급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영재 교육 담당하는 실무 장학사와의 면담에서는 영재 교육과 관련하여 영재 교육 담당 강사의 연수 계획, 영재 교육 아동 선발 방법, 영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인 평가 계획, 영재 교육을 실시하는데의 어려움, 2005학년도 수학/과학 영재 학급 설치가 바뀐 이유, 2005학년도에서의 영재 교육 추진 계획, 앞으로의 영재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영재교육원에서의 영재 교육의 운영에 대한 질문은 영재 아동 선발 방법,

선발된 아동 진급관계 및 지도 방법, 교육과정의 내용 편성 및 운영, 영재 교육생에 대한 평가 방법, 지도 강사간의 의견 교환 방법, 운영의 재정적인 지원, 영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질의를 했다.

영재 학급 담당 강사에게는 영재 아동 선발 방법, 영재 교육생에 대한 평가 방법, 영재 담당 강사간의 만남의 기회, 캠프 운영에 대한 생각, 영재 학급을 운영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 영재 학급 설치가 바뀜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문제점을 대해 질의를 하였다.

영재 학급생에게는 영재 교육을 받은 소감, 영재 교육을 받은 후의 평가 실시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영재 학급에서 바라는 상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제주도 영재 교육 정책 담당 장학사와 영재교육원에서의 영재 교육 담당 교수, 영재 학급 담당 강사, 영재 학급생의 의견들을 종합, 분석을 통해 영재 학급과 영재교육원에서의 영재 교육의 운영 부분을 비교함으로써 제주도의 영재 교육의 정책 및 영재 학급의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영재 교육 정책 및 영재 학급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영재 학급에서의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기간

본 연구는 영재 아동들의 잠재된 창의력과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여 자아실현 및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영재 교육의 정책과 영재 학급에서의 영재 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재 교육의 추진 방향

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시키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재 선발에서 시작하여 영재 학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재 학급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원의 운영과 비교하여 보다 바람직한 영재 학급의 운영의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초등과학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두 교수님과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영재 교육 실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영재 학급을 담당하는 강사, 영재 학급에서의 영재 교육이 주는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영재 학급생 2년차와 1년차인 학생들과 면담을 하였다. 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에 걸쳐 면담을 수행하였다.

영재 학급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제주도내의 지역별 영재학급 담당하는 강사 한 사람씩 선정하여 면담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영재교육 직무연수를 받을 때 각각의 팀을 구성하여 영재 학급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눈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영재 학급 담당 강사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영재 학급을 운영하면서 생긴 문제의 경험을 통해 영재 학급 운영의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서귀포관내 영재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에서 타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담당하는 강사와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영재 학급 운영과 비교하여 영재 교육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영재 학급 운영의 정착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모색하는데 있다.

면담 대상자에 대한 기초 자료는 다음 <표 III-6>와 같다.

<표 III-6> 면담 대상자에 대한 기초 자료

대 상	답 당	특 징
A장학사	제주도교육청 영재교육담당자	영재학급시작부터 실무 담당으로 2년
B 교수	영재교육담당자	제주초등과학영재교육원 초등수학반 실무담당 4년
C 교수	영재교육담당자	제주초등과학영재교육원 초등수학반 실무 담당 1년
D 강사	영재학급 강사	서귀포관내 영재학급 담당 2년
E 학생	영재교육생	서귀포관내 영재학급생 2년차
F 학생	영재교육생	서귀포관내 영재학급생 2년차
G 학생	영재교육생	서귀포관내 영재학급생 1년차



IV. 자료 분석 및 결과 해석

영재 아동들의 잠재된 창의력과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여 자아실현 및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현재 제주도에 서 추진되고 있는 영재 교육의 정책과 영재 학급에서의 영재 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재 교육의 추진 방향으로 일 관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시키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영재 교육 정책을 바탕으로 영재 교육에 관해 꾸준한 연구와 앞으로의 영재 학급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2003년부터 영재학급을 운영해 왔다. 현재로는 영재 학급 운영의 정착 화 및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재 학급의 문제점을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 요가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 고 여겨진다.

본 연구자는 영재 교육과 관련되어 활동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면담한 내용의 자료와 영재 교육과 관련된 공문, 영재교육담당자 회의 자료를 바탕 으로 영재교육 정책의 문제점, 영재 학급 운영의 문제점과 영재교육 정책 및 영재 학급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은 영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즉, 영재 교 육 대상 선발, 영재 담당 교사 연수 등과 같이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영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재 학 급 운영의 문제점은 영재 학급에서 운영되는 영재 학급 교육과정의 편성, 담

당교사 배정 및 담당 강사간의 의사소통의 기회 등 영재 학급 운영 속에서 빛어지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재교육 정책 및 영재 학급의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영재 학급 운영의 영재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데 중점을 두었다.

1. 제주도 영재교육 정책의 문제점

가. 영재담당교사의 연수 부족

영재교육을 실시하면서 해마다 영재교육 이수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2000)의 제12조(교원의 임용 및 자질 향상)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는 기본 연수와 심화 연수로 나누어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영재교육 담당 강사는 영재교육에 대한 직무 기본 연수를 이수 받은 교사들이 심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을 제시하고 있다.

겨울에는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 연수, 여름에는 영재 교육에 대한 심화 연수를 하는데, 심화 연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탁 연수를 하는데, 영재 학급 설치된 학교에서는 영재 담당 교사를 수학, 과학담당 교사를 각각 2명씩이잖아. 이 중에서 심화 연수를 받는 교사는 각 학교당 1명씩만 추천받아 연수 받아서... 제주도교육청 주최로 제주내에서 심화 연수를 했으면 좋겠고, 영재 학급에서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가 있으면 좋겠어. (D강사)

이처럼 영재담당 강사의 연수의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영재담당 강사의 연수에 대해 살펴보면 기본 연수는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63시간 이수를 하고 심화 연수는 학기 중,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의 연수를 받게 된다. 기본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이 심화 연수를 받고자 하여도 심화 연수의 인원수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심화 연수는 전국의 영재 교육 담당하는 교원들의 연수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화 연수는 학기 중에서는 온-라인 상으로 교육을 받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가서 연수를 받는다. 일부는 학기 중의 연수가 이루어져 심화 연수를 받으려고 해도 시간적인 제약으로 연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 재정적 지원 빈약

한 국가에서 영재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취지와 목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로 나누어서 영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영재학급의 영재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서가 다름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재정이 2개의 부서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재정적인 지원도 같은 배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재 학급 설치된 영재 학교에 주어지는 영재 학급 운영비는 2003년에는 400만원, 2004년에는 6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에는 800만원이 지원되었

다.. 여기에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같은 조건에서 영재학급이 운영된 것은 아니다. 2003년에는 수학·과학 담당교사 4명이고 교육과정 시간수는 80시간이고 2004년에는 담당교사 4명, 시간 수는 100시간, 2005년에는 학년 구분으로 운영하게 되어 담당교사 6명, 교육과정 시간 240시간이다.

2005학년도 영재 학급 운영비에 대한 ○○초등학교 영재 학급의 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IV-7>와 같다.



<표 IV-7> 2005년 영재 학급 운영비 계획

운영형태	지역공동			
구 분	예산액	집행예정액	예산확보 방법	비 고
교육청 지원금	8,000,000	8,000,000	교육청 지원	
자 체				

재 정 운 영 계 획

연번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예정액	비 고
1	강사료	5,280,000	5,280,000	120시간×2학급×22,000원
2	학급운영비	600,000		2개 학급
3	자료구입	900,000		창의력 계발 및 문제해결 학습자료
4	소모품	500,000		복사용지, 프린터 잉크, 현수막, 기타
5	회의비	600,000		회의수당, 채점, 감독수당
6	정보수집	120,000		
	계	8,000,000		

<표 IV-7>처럼 영재 학급 운영 지원금에서 지출되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강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사료는 시간당 정해져 있고 강사수 또한 정해져 있어 일정하게 지출되는 내역이다. 이런 문제로 그 나머지 금액으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영재 학급 담당 강사는 영재 교육이 특수교육임에 불구하고 영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이 지원이 부족함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영재 교육이 특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적어, 영재 학급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강사로, 감독 수당, 학습 준비물 등 다른 기타 시설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D교사)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동안의 영재학급 운영을 위해 지원된 금액이 적어 여러 학습에 필요한 재료 및 학습 자료 구입에 어려움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재교육원의 재정 지원은 과학기술부에서 3년 단위로 각 지역별 영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재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여 A, B, C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은 1억 7천 5백만원, B등급은 1억 5천, C등급은 1억 2천 5백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평가 등급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중등, 초등의 각 분야의 수로 나누어 분배한다고 한다. 즉 영재교육원에서의 재정 지원은 영재 교육 실시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재 학급의 운영비와 영재교육원에서 운영비는 비교하여 보면 영재 학급 운영비는 영재교육원에서의 운영비와는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다. 영재 교육 직무연수 교사 추천 기준 미비

‘2003년 영재학급 설치 계획 알림’공문자료(2002)에 의하면 2003년부터 영재 학급이 설치되면서 영재 교육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영재 학급 담당 강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순위 : 영재 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
- 2순위 : 수학 또는 과학 교육을 전공한 교사
- 3순위 : 수학 또는 과학 경시대회 지도 실적이 있는 교사
- 4순위 : 영재 학급을 맡아 성실히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영재 학급 담당강사 선정 기준이 우선 순위가 영재 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이다. 이것은 영재 교육 직무연수 이수할 수 있는 교사자격의 범위는 넓다. 다시 말해 교사라면 누구나 영재 교육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영재 학급 담당 강사들에 대한 보상을 준다. 그 보상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선택 가산점이다. 영재 담당 강사로 활동하게 되면 부여되는 가산점이 있어 승진에 점수를 필요로 하는 교사들이 영재 담당 강사로 희망하고 관심이 많다고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국에 영재 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다른 타·시도와는 다르게 영재 교육 담당 교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첫째에는 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교무 선생님이 영재 교육에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의 목적으로 영재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 질적 저하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A장학사)

여기에서 영재 학급 담당 교원의 순위가 영재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우선이므로 영재 교육 직무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 교사들이 많고 연수를 받을 교사 선정 조건에 대한 기준 선정이 미비됨을 알 수 있다.

영재교육 담당하는 강사는 영재 교육의 연수를 이수한 교사이여야 할 것

이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영재 교육의 전반적인 이해와 영재아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등 영재 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영재교육에 임한다고 본다.

영재 교육 직무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들이 많아 영재교육 직무 연수 자격 조건에 대한 선정 문제에 봉착한다. 영재교육의 수학/과학의 분야는 폭넓은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 초등에서 일반 국정교과서에서 지도하는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재 교육이 일반 교육과정에서의 심화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심화 학습을 지도하려면 수학/과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재 교육 직무연수를 받을 교원들의 자격 기준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영재 학급 설치 변화에 따른 기존 자료 미공유



효율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 도구 및 교구, 기자재 등이 필요하다. 영재학급 설치된 학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종이, 준비물 등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그 비용의 절감으로 학습 교구, 기자재를 구입하여 학습에 투입시킨다.

2003년부터의 설치된 2년 동안 수학/과학 영재 학급 설치된 학교가 영재교육을 위해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영재 교육 자료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는데, 2005년에는 타 학교가 수학/과학 영재 학급이 설치됨으로써 구입된 학습 자료가 사장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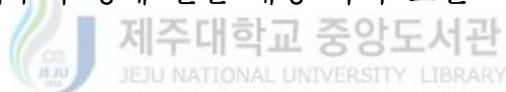
제주도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서귀포관내 지역에서는 기존의 두개의 설치 학교가 타 학교로 변경이 되었다. 이런 영재 학급 설치

변화에 대한 장학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이 왜 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항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영재 학급을 설치할 하는 것입니다. (A 장학사)

이처럼 영재학급 설치의 문제는 학부모의 요구 즉, 수요자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영재 학급의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문제점을 없애는가에 대한 고려할 점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진다.

마. 성적 위주의 영재 선발 대상 자격 조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영재성이 있다라고 단정짓지는 않는다. 일단은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에는 학교 성적으로 재적수의 5%이내의 학생에게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된다.

재적수의 상위 5%에 들어가면 문제 파악능력, 문제 해결능력이 있다는 전제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출한 학생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에 임하는 자세와 참여도를 관찰해 보면 학교 성적이 중간 정도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들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자녀와 담임교사는 각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행동, 주어진 문제에 임하는 자세, 말하는 의견을 잘 관찰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2년 동안의 영재 학급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각 분야의 학교 성적인 상

위 5%로 학생들에게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지만 2006학년부터의 영재 선발은 정의적인 측면인 영재성을 고려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일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질 방향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영재 선발의 자격 조건을 교과 성적으로 해 왔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과정을 이수한 자의 한에서입니다. 둘째는 영재의 특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적 특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영재아의 특성들의 문항에서 교사, 아동, 학부모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장학사)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성적이 우수한 아동이 영재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정의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영재 선발을 할 계획이다.

영재 시험을 응시한 아동 중에서도 의외의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학교 성적은 중간이지만 장난끼가 있는 학생을 데리고 영재 시험에 응했다고 한다. 누구나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영재 선발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 여겼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장난끼가 있고 활달한 성격이 가진 학생이 영재 시험의 선발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재성은 남들보다 좀더 많이 지식을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창의성과 관련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지필평가에 치중한 영재 선발 방법

영재 선발의 원칙은 다단계 선발 과정에 통해 선발한다. 지금 현재 영재 학급 학생 선발과 제주과학영재교육원에서의 학생 선발은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영재 학급 영재 선발에는 학생들의 창의성 검사, 수학·과학 분야에 대한 지적 검사로 여러 영역의 검사를 통해 실시하고는 있지만 단계를 밟고 선발한다고 볼 수 없다.

영재학급 학생 선발은 지필평가에서 영재판별검사, 수학·과학 분야의 지필평가 두 가지 시험에서 각 검사에서 평균 40점이 넘어야 하며 두 시험에서의 점수가 높은 학생 순에서 20명을 선발을 한다.

영재 선발에서 아동들의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측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알고 있는 지식을 응용력을 살펴볼 수 있는 구술 검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구술 검사는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함으로써 문제 이해력 및 문제 해결력,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이다.

단순한 지적인 학생들의 답변이 아님만큼 이에 대한 각 분야의 지식과 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는 2006학년 영재 학급 선발 시에는 면접을 첨가하여 선발하겠다는 뜻을 보였으나, 학생들의 창의성을 묻는 면접이 아니라고 하였다.

2006학년도에서도 수학·과학도 1차 선발에서 2.5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 면접의 내용은 앞으로서의 영재 교육을 받으면 동일 계로 진학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열심히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겠는가에 대한 여부를 질문을 통해 그것에 응하겠다는 학생들에게 높

은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영재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의 이공계로 진로를 잡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장학사)

이처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면접이 정의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지만 좀더
영재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판별하는 도구로 면접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면접에서는 정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
는 문제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 영재(수학/과학) 교육과정 시간 부족

영재 교육은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말에 3시간, 여
름·겨울 방학 때 집중교육이 6일 정도 이루어진다. 영재학급에서는 수학·
과학 통합하여 지도하는 시간이 2004년 80시간, 2004년 100시간, 점차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 과목에 지도하는 시간은 50시간이다. 한
과목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시간수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영재교육원
에서는 한 과목당 영재 교육의 시간 확보가 주말교육과 집중교육 시간을 합
쳐서 영재 교육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학기중에는 격주로 1번씩 주말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수업을
하고 방학중에는 집중교육이라 하여 5-6일 정도 하루에 6시간을 지도하
며 1년 동안 100시간 이상을 지도합니다. (C교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재교육원에서는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100시간

이상으로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영재 학급 영재 교육 시간을 비교하면 영재 학급 영재 교육과정 이수 시간이 적다.

수학·과학이 통합하여 지도하니까 한달 중에서 2일만 한 과목의 시간을 주어져니까 한 과목당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 한번하는 수업시간이 3시간이긴 하지만... 수학·과학 통합하여 지도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한 과목에 시간적 투자로 집중 교육이니 하지만 시간적 투자는 지금 실시하는 교육과정 시간 수는 적다고 봐. (D강사)

영재 학급에서는 수학·과학 통합하여 지도하기 때문에 영재 학급의 영재 교육의 시간 확보는 영재 교육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학·과학을 통합하여 지도하려면 200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 심화적으로 각각 100시간을 투입을 하면 학생들에게 수학 마인드, 과학 마인드가 생긴다고 봅니다. (B교수)

이와 같이 수학·과학에 대한 안목이 생기게 하려면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수학·과학 지도 시간이 240시간이다. 각 과목당 120시간이 투입이 되지만 학년 구분하여 지도하기 때문에 각 학년에 투입되는 시간은 60시간이 된다. 아직까지도 수학·과학 지도 시간수는 수학적 안목, 과학적 안목이 생기기에는 부족하므로 계속해서 시간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아. 영재 교육 학생들의 과정상의 연계 부족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영재교육의 효과성의 평가의 기준은 영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동일계의 진학률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도교육청에서의 영재 학급 선발을 할 때 면접을 보게 되면 정의적인 측면에서 ‘동일계의 진학 여부’의 질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영재 선발에 있어서 영재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1년 수료를 마치면 새로운 응시자 자격으로 시험을 보았다. 단, 영재학급 수료자일 경우에는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초등·중학교의 영재 교육의 연계를 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새롭게 영재 선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초등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같은 학교에서 2년 동안은 한 학교에서 영재 학급 설치로 하고 있으므로 산출물 평가, 교사 관찰, 수시 평가에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근거하여 학급의 20명 중에서 50%는 그대로 6학년으로 혹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진급할 때에는 상위 20~30%에서는 그대로 중학교에 연계해서 진급시키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은 다시 영재 학급 선발 시험을 통해서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A장학사)

이처럼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영재 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영재 선발 전형 방법을 변경하여 초·중등 영재 교육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시도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학년도부터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에서는 학년 구분해서 영재 학급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2006년부터는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교육청의 계획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될 수 있도록 지필 평가, 수행물, 수업 참여도 등의 평가가 필요하고 교사들의 영재성을 보는 안목 또한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2. 제주도 영재 학급의 운영의 문제점

가. 영재 교육 교육과정 내용별 담당교사 배정

영재학급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교과목은 수학·과학 통합 지도를 하는데 반해 영재교육원에서는 각 과목의 수학, 과학, 정보를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한다.

영재성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과정의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

영재 교육에서는 속진교육과 심화교육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영재 학급에서의 영재 교육은 속진보다는 심화 교육을 우선시 한다. 영재학급에서는 대상을 5·6학년을 똑같은 교육과정을 두고 교육을 시킨다. 영재학급 연간 교육과정을 계획함에 있어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 교육과정 초등 5·6학년에서 배우는 과정의 심화 학습을 한다. 영재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을 먼저 세우고 교육과정에 따른 담당 배정은 담당 강사들이 모여서 자신 있는 영역을 선택하여 지도한다고 한다.

프로그램은 교수가 결정을 하고 각 프로그램을 담당할 지도 강사는 만나서 각 분야별로 각 강사가 자신이 있고 잘 아는 분야를 지도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 교환을 합니다. (C교수)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재 수업에 담당하는 강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갖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적으로 영재학급은 각 영재 수업에서 강의를 할 강사의 순서를 정하여 교육과정에 순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지도한다.

영재 학급 교육과정 담당 강사 배정은 영재교육원과 같이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영재담당교사가 자신 있는 영역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영재 학급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 부족

영재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뿐만이 아니라 영재 교육 수업에 대한 운영상의 강사간의 의견이 필요하다.

영재 교육 담당하는 강사들의 구성은 영재학급 설치된 영재학교 본교에 있는 교사와 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사전에 영재교육 담당하는 강사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수업의 운영 및 수업 담당일 등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각자의 학교 일정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모임의 자리를 마련하기가 힘들다.

영재 수업의 원칙 즉, 교육과정의 일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전 논의가 없어서 ○○ 영재 학급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 영재 학급 교육과정 운영이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수학, 과학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과학 담당하는 강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과학 수업일에 수학을 하게 되었다. 수학 담당 강사는 과학과목 수업일에 수학을 했으므로 연이어서 수학을 2주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다음주에는 과학수업을 할 것이라 여겼고, 과학 담당교사는 자신과 다른 수학 담당강사와의 수업일과 맞바꿨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주에는 교육과정 그대로 수학 수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주의 수업 과목 겹으로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뻔 했던 일이다. 이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견해의 차이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사전에 교육과정 원칙에 대한 연수가 없어서 혹은 의견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라고 여겨진다.

다. 영재 교육 학생 평가 미비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교육을 하는 방법에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면담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도 있다. 즉 사이버 상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자료를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들을 활용하거나 과제 수행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다. 영재 담당 강사는 영재 학급 설치된 학교 홈페이지의 ‘영재학급 자료실’에 다양한 자료와 문제 자료를 탑재하지만 학생들은 단순히 영재교육이 교과 외의 수업을 받는 교육으로 여겨 참여도가 저조하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고 의문에 대해서도 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 동기는 ‘평가’에 있었다.

영재학급에서의 평가의 영역은 아동들의 수업 태도, 각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수행물 해결 정도이나 평가에 대한 비중이 없다.

이에 반해 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 교육을 받은 내용에 대해 아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업의 참여, 발표 등을 고려한다. 영재교육원에서의 평가에 대한 비중은 크다.

교육과정 시수를 100시간을 두고 한 프로그램당 3시간으로 짜서 지도합니다. 각 투입되는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아동의 행동 관찰하고 수행물을 검사로 평가. 참여도 등 그 아동에서 대해 평가를 합니다. (C교수)

이처럼 영재교육원에서는 평가를 실시하면서도 평가 방법은 수업시간에서의 아동들의 행동 관찰, 참여도뿐만 아니라 수업 외의 아동들의 과제 해결 참여도를 평가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홈페이지 상에서 제시되는 수행해야 할 문제를 게시하면 아동들이 그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 또한 평가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교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재교육원에서의 평가로 인해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재 교육원에서의 영재 교육의 단계는 학년 구분이 아니라 과정 구분이다. 12월 말에 3·4학년 대상으로만 선발을 하여 이 아동들의 1년차는 기초

과정을 받고 이 과정을 수료한 2년차인 학생들은 심화 과정을 받게 된다. 기초 과정에서 이수하는 과정에 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탈락이 된다고 한다.

각 프로그램당 배점을 70점을 주고 중간 평가에서 30점을 배점을 두어서 그 기준에 미달시에는 자동 탈락을 시킵니다. 한 학기당 프로그램을 9개를 하는데, 각각의 70점을 두는데, 이 과정은 아동들의 출석, 수업참여도, 수행물 평가에서 이루어집니다. (B교수)

이처럼 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 교육을 실시하는 가운데 평가 방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즉, 지필평가 및 수행물 해결 정도 평가, 수업 참여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지식적인 문제 해결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의 수행을 알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하여 주제 발표식 평가도 있다.

영재 교육생의 지필평가에 대한 견해를 영재 학급에서 2년 동안 받은 학생과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학생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형식은 우리가 수료식할 때 부모님 앞에서 배운 것에 대해 발표하듯이 발표 형식이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매 시간마다 공부한 후에 수행평가를 하니깐 그 시간 배운 것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 등 결과물을 보고 그 사람의 향상도라고 할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시험은 보지 말고 말이예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생겨요. (F학생/2년차)

위 학생은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평가 방법으로 지필 평가로만 평가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했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수학·과학 수업을 받으면서 과학이나 수학의 실력이 향상됨을 느낍니다. 자신의 실력 향상도를 평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험을 본다면 중간, 수료할 때쯤에 1년에 2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E학생/2년차)

위 학생은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 횟수를 한 학기에 1번 정도는 평가를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시험은 싫고 발표식이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틀에 박힌 답을 요구하지만 발표식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발표가 좋을 것 같아요. (G학생/1년차)

이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이 향상됨을 느끼고 있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평가 방법을 지필평가의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를 원하고 있었다.

2년 동안 영재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인 향상도 측정하는 평가 계획은 도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재학급 설치 자체적인 평가 실시 계획도 없었다. 영재 학급을 운영하면서 영재 학급에서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인식부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좀더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영재 학급의 운영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영재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인식의 전환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 단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말에 단체에서 캠프에 참여한다든가, 사실 학원 경시대회에 참여하면서 결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학습 결손이 생기므로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 영재 교육의 충실성을 관찰하고 영재 교육에 대한 결손이 생겨 프로그램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동 탈락하는 조항을 만들어 자동 탈락을 시키고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여 영재 교육을 받고 싶은 아동들에게 기회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평가하여 아동에 대한 성취 측정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A장학사)

이처럼 2005년에서부터 학생들의 적극적인 영재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출석, 수행물 평가 정도뿐만이 아니라 학기 중에 학교 자체적으로 지필 평가를 실시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제주도 영재교육 정책 및 영재 학급의 개선 방향

가. 영재교육 담당 강사 연수의 개선방향 : 대학과 연계 연수

영재교육 담당 강사가 영재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신장을 위해 심화 연수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지는 심화 연수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제주도교육청에서 주관으로 심화 연수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원에서의 실제 영재 교육의 수업 참관을 하거나 세미나 개최하여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영재 교육의 방향을 바르게 인식함

으로써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단위 학급 내에는 영재가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일선 담임교사가 영재아에 대한 특성의 무지와 오해로 인해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 찍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 담당 강사뿐만이 아니라 일선 교사에게도 영재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재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영재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일선 교사들에게 영재아에 대한 이해의 연수 및 홍보를 자체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재교육 담당 강사들의 전문적인 영재교육의 신장을 위해 영재교육원과 연계하여 영재 교육의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 재정적인 지원 강화 : 영재교육정책 부서를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



영재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커리큘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배우는 그 내용을 좀더 학생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좀더 탐구심과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교육적 환경 즉, 시설 면에서도 우수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영재 학급을 운영하는 데에 지원되어지는 적은 예산으로 영재 교육에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는 영재 학급 설치학교는 각 지역의 중심 학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간단한 학습 준비물을 학교에서의 물적 자원으로 충당하였다. 교육방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학습 교구들을 사들여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영재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한번쯤 살펴볼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부에서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영재 교육의 필요성, 목적은 같으나 추진 방향은 다를 수 있다. 즉 과학기술부에서의 산하에 있는 대학에서의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에서는 과학 분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학, 과학, 정보 분야에 중점을 둔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산하에 있는 영재 학급의 운영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수학, 과학의 통합 지도로 이루어졌지만 2005년부터는 영어 영재 학급이 설립하여 2005년에는 영어 영재 학급 학생들을 선발을 하였다. 앞으로도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재아도 선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과학 분야의 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영재아 육성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영재아를 선발하려는 수월성 교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서까지 영재 학급이 늘어감에 따라 그만큼 한 분야에 투자되는 재정적인 지원은 줄어들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영재교육의 추진을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영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선정을 하여 교육적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인 측면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 영재 교육 직무연수 교사 추천 기준 : 각 분야의 전공자가 우선

영재 교육에 담당하는 교사들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는 각 분야의 전공적인 지식이 밑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영재담당교사의 선정 기준이 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자의 순위가 우선이 되므로 영재 교육 연수를 받는 교사의 추천 기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히 가산점이 부여하는 보상이 있어 누구나 관심이 있는 특수 교육 분야라고 여겨진다.

영재 교육 직무 연수 대상자는 여러 해 동안 각 학교에서 수학/과학 경시대회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교사, 대학에서 수학/과학 전공자, 대학원에서 각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인 자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의 소양을 가진 교사를 우선시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라. 영재 학급 설치의 일관성



앞으로의 영재 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교에서 영재 학급이 설치될 것이다. 기존의 영재 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서 구입한 영재 교육 자료를 새로운 학교에 이관을 시켜 자료 활용을 강조하지만 자료의 이관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기존에 영재 학급 설치된 학교에서 구입한 자료의 활용이 사장이 될 우려가 있어 새로운 영재 분야의 영재 학급 학교의 설치에 대해서는 새로운 학교로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학교가 골고루 영재 학급을 설치되고 수요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영재 교육을 위해 투자된 재정을 낭비의 우려가 생기므로 기

존에 설치된 영재 학급은 기대로 두되, 단지 새로운 영재 분야의 영재 학급 설치에 있어서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마. 학생 선발의 대상 선발 방법 보완

영재아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재 선발에 대상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다. 2003년, 2004년에는 수학, 과학 분야에 우수한 학생 중에서의 학년 재적수의 5% 이내, 2005년에는 수학, 과학 분야에 우수한 학생 중에서 학년 재적수의 7~10% 이내로 확대하긴 하였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학교 성적은 평범하지만 해당 교과목에서나 평소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은 추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교내에서 10% 이내로 한정하게 되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보다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추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재아 선발에 있어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담임교사들의 각 학생들의 정의적인 영역, 학부모 입장에서의 각 아이들의 정의적인 영역을 설문지를 조사하고 또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은 면접(=구술 평가)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바. 학생들의 영재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평가 방식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 개선

일선 학교에서도 배운 학습 내용의 이해 및 적용, 지식 면을 분류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즉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평가라 할 수 있다. 평가는 학생

들이 배우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평가 방법에는 다양하지만 지식면을 측정하는 지필 평가뿐만이 아니라 발표식 평가, 수행물 평가, 학습 참여도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재 교육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에는 심화 학습을 중시하므로 보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학습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학습 참여를 유도시킨다. 또한 이것은 주말에 실시하는 학생들이 수업 결손률을 줄이는 이유도 있다.

주말에 3시간, 방학 중에 집중 교육을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영재 교육 교육과정 확보 시간이 부족하여 영재 학급 운영하는 홈페이지 상에서라도 과제물을 제시하고 해결하도록 학습 시간 외에도 학습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영재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 도입과 흥미 있는 내용의 교육과정이라고 본다.

사. 교사들의 의견 교환, 자료 공유 : 영재 학급 담당교사간의 자체 연수, 영재교육연구회 조직, 웹 공유

영재교육 교육과정을 연간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에 타 학교와 영재 학급 설치된 학교에서 영재 담당하는 강사와의 만남을 갖고 영재학급의 운영면이나 교육방법, 학생들의 폭넓은 경험의 기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할 수 있도록 월 1회는 정기적인 만남의 기틀을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영재담당강사와의 의견교환뿐만이 아니라 한 학교의 영재 설치된 영재 학급을 담당하는 영재 담당강사와의 자체 연수도 필요하다.

영재 학급에서의 효율적인 영재 교육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무 담당하는 영재 담당강사와의 의견 교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영재교육 연구회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회는 2005년부터 연구회로 조직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에서 지도하는 자료 및 개발된 자료를 타 지역의 영재학급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중심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웹상에서도 자료를 공유하는 자료실 운영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영재 교육에 대한 궁금증이나 영재 교육에 대한 의문을 상담하는 방을 개설하여 활발하게 영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한다.

영재 교육에 담당하는 교사 대상으로 영재교육연구회를 결성을 하면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게 되고 자료 정보 수집에 더 열정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 교육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힘쓰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기저를 다지게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영재 교육이 개인적인 차원에는 교육의 평등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재 육성의 목적 하에서 영재 교육이 시작하였다.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재 교육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제2차 영재 교육을 계획을 세워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영재 아동들의 잠재된 창의력과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여 자아실현 및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현재 제주도에 추진되고 있는 영재 교육의 정책과 영재 학급에서의 영재 교육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영재 교육의 추진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영재 학급 운영의 활성화시키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영재 교육에 관련해서 담당하는 실무 장학사, 영재 학급 담당 강사, 영재교육원에서의 담당 교수, 영재 학급생과 직접 만나 제주도 영재 교육 운영 현황, 영재교육 정책 및 영재 학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면담한 자료와 영재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의 관련된 공문 자료를 바탕으로 영재 학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 담당 강사 연수를 대학과 연계하여 연수의 기회를 확대시킨다. 기본 연수를 이수한 영재 학급 담당 강사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

하는 심화 연수를 받는 데에는 인원수 제약을 받는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심화 연수를 도내에서 받을 수 있는 연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정책 추진 기관은 다르지만 도교육청은 영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연수의 기회를 마련하여 좀더 영재 학급 담당하는 강사들이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영재 교육의 교육적 환경을 개선 및 영재 담당 교사들의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적 환경은 영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자료 개발 프로그램 투입과 학습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을 수 있다. 또한 영재 교육을 담당해야 할 강사들을 전문적인 영재 교육의 안목의 신장을 위해서는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영재 아동의 선발이다. 영재아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발 자격을 지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영재아의 행동 특성인 정의적인 영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정의적인 영역은 평상시에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관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이므로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영재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와의 영재아의 행동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재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영재 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는 평가이다. 창의성을 개발하고 잠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매년마다 개발되는 학습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투입을 시키고 있다. 이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말에 이루어지는 영재 학급 수업을 단순히 교과 외의 심화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정도로 생각하여 주어지는 과제물 해결하는데 학생들의 활동이 소홀히 하는 경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다 학습에 참여는 태도를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연간 계획에 평가 영역을 첨가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 간의 의견 교환의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 영재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강사들 간의 모임 혹은 영재교육연구회가 필요하다고 한다. 영재 학급이 설치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재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들을 공유하여 보다 흥미 있는 학습 자료를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강사들의 열정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는 영재교육연구회를 조직을 하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의 웹 지원으로 도내의 영재학급 운영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갖고 영재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활성화시키면 강사간의 의견 교환 및 정보 수집에 앞장서게 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교재 개발까지 이루어진다.



2. 제언

영재 학급 운영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현재까지 운영되어진 과정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학년도의 영재 교육의 새로운 추진 방향을 영재교육담당자회의자료(2005)에서 제시하고 있다.

2005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과 본 연구에서 못한 내용에 대해 좀더 자료 조사가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교육청에서 영재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위해 사

이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교통의 불편으로 섬에 있는 학생들은 영재 학급 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도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제외된 학생 중에서도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고려하여 또한 영재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그 방안이 사이버 교육의 실시이다. 사이버 교육의 취지를 잘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영재 학급 운영에 대한 견해를 본 연구에서는 영재 교육 실무담당 장학사, 영재 학급 담당 강사, 영재 교육원의 교수, 영재 교육생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에서 제외된 학부모 대상에서 영재 학급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언주(2001). **영재의 판별과 선발**. 한국영재학회춘계학술세미나 자료
부산과학고등학교. [Online] Available: Worldwide Web <http://www.bas.hs.kr/science>
- 서정표(1993). **수학 영재의 판별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영재교육진흥법(2000). [Online] Available: Worldwide Web <http://jurye.hs.kr/class/brilliant/brilliant.php>
- 영재학급(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영재교육연구학교). 주례여자고등학교.
[Online] Available: Worldwide Web <http://jurye.hs.kr/class/brilliant/brilliant.php>
- 정기오 외(2002).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시행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 제주교육대학교초등과학영재교육원(2004). [Online] Available: Worldwide
Web <http://samda.jejue.ac.kr/~gifted>
- 제주도교육청(2003). 2003학년도 영재교육 담당자 회의 자료.
- 제주도교육청(2004). 2004학년도 영재교육 담당자 회의 자료.
- 제주도교육청(2005). 2005학년도 영재교육 담당자 회의 자료.
- 제주도교육청(2003). **영재교육의 재조명**. 전도영재교육 담당교원 워크숍자료.
- 제주도교육청(2002). 2003년 영재학급 운영 계획 알림(학무 81320-3538)
- 제주도교육청(2003). 2003년도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계획 알림(학무 81320-455)

- 제주도교육청(2003). 영재교육 담당교원 심화연수 대상자 추천협조(학무 81320-1943)
- 제주도교육청(2004). 2005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형 요강.
- 제주도교육청(2004). 2004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신입생 선발 계획 알림(학무 81320-1049)
- 제주도교육청(2004). **영재교육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홍보자료
- 제주도교육청(2004). 영재 교육. [Online] Available: Worldwide Web
<http://jeju.ac.kr/>
- 조석희(199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1996). **과학 고등학교 입학생 선발 방법의 개선 방안**. 과학 영재교육의 발전적 지향에 관한 세미나 발표 논문
- 조석희(2002). **영재성과 판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2002). **영재성의 개념과 판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용환(2003).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탐라교육원(2003). **초·중등 교원 영재교육 직무 연수**. 제주: 탐라교육원
- Fox, L. H. (1976). *Identification and program planning : Models and methods*. In D. P. Keating (ed.) *Intellectual ta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Renzulli, J. S. & Reis, S. M. (1997). *The schoolwide enrichment model: A how-to guide for educational excellence*(2nd ed), Mansfield Center, CO: Creative Learning Press.

Abstract

A Study for Activating Programs for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in Jeju

Kim, Yun Soo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 Ge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of policies and programs for gift and talented students in Jeju and to suggest better ways to activat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program in Jeju.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chos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interviewed curriculum coordinators at the district office, instructors and professors of gifted and talented classes, and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lasses. Also, the researcher analyzed official documents on gifted and talented class in Jeju.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it needs to increase instructors' opportunities for on-the-job training. Teachers who took a basic course on teaching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want to take upper-level courses opened at the Korea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5, 2005.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but the opportunity for taking one of the courses are very limited. Thus, for oper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classes, the district office should provide more on-the-job training programs to increase teachers' expertise.

Second, it needs much more financial supports for upgrading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for teachers' on-the-job training. When the district office can spend more money on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facilities and teachers' on-the-job training, students' performance will be increased.

Third, it needs to change the ways to select students who participate in gifted and talented classes. Currently, students are selected by their intellectual abilities, but their affective parts should be considered when select students who participate in gifted and talented classes.

Fourth, it needs to stress the role of tests for inducing student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Students might regard the class as one of extra-curriculum activities, so they do not focus their attention on assignment. Thus,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it needs to make yearly plans for tests.

Finally, it needs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increase instructors' mutual communication. When instructors have some channels to communicate each others and to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teachers, the quality of the program and teaching materials will be increased.

<부록 1>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추진 계획

□ 2002년도 추진 계획

○ 영재교육진흥법령의 완비

- 현행 영재교육진흥법의 일부 문제조항 개정 추진 (국회 교육위 계류중)

* 개정필요조항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권을 현행 교육감에서 각 영재교육기관으로 변경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02. 4. 8 국무회의 의결) 시행

○ 영재교육 시행모델 확립

- 관계부처의 행·재정지원을 조건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의 협약에 의한 영재학교 운영방안 정립

- * 과기부·부산교육청간 협약체결('01.11.14)로 부산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합의

- 시·도교육감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협조에 의한 영재교육프로그램 개설 적극 유도

○ 영재교육 정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에 구성·운영(4월중)

-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영재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

○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 연내에 영재교육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담은 『영재교육진흥 중

합계획』을 수립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가·지원, 재정책보방안 등을 구체화

□ 2003년도 이후 추진 계획

○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제도적 기반 강화

- 종합계획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전문 개정 추진
-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초·중등 교육법상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선진국의 영재교육 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

○ 전문분야별 영재육성을 위한 관계 부처간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

- 수학·과학·예능 등 전문분야 영재육성을 위한 관계부처의 영재 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확대 추진
- 각종 교육·연구시설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부록 2>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영재 교육 추진 계획

□ 2002년도 추진계획

○ 영재학교(부산과학고) 개교 준비(2003년 3월 1일 개교)

- 수학·과학분야의 최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로 육성
- 연내에 신입생(144명) 선발 및 교육과정 개발 완료
- * 신입생 선발은 학과성적 위주가 아닌 (1)서류전형 (2)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3)과학캠프를 통한 심층면접 등 다단계 절차 통해 창의성 위주 선발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부산교육청 공조로 영재학교 전환을 중점 지원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 초·중·고등학교의 각급 학교에 설치(영재학급) 또는 시·도 교육청 및 대학 등 부설기관으로 설치(영재교육원)하되, 방학중·방과후 주말 등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 법령상의 여건을 갖춘 곳부터 시·도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계적으로 설치 승인
- 2002년도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 계획
- 영 재 학 급 : 전국 초등학교(23교, 1,210명), 중학교(17교, 428명), 고등학교(7교, 455명) 등 총 47교, 134학급 설치·운영
- 영재교육원 : 전국 시·도교육청(62개소, 7,524명) 및 대학부설 (5개소) 총 67개소 설치·운영 예정

□ 200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영재교육기관의 확대 및 분야의 다양화

- 영재학교는 부산과학고의 운영성과를 보아 타 과학고 및 다른 분야로의 확대를 추진
-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은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

* 시·도교육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 계획 ('02-'05)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영재학급	23	17	7	47	69	55	34	158	94	75	47	216	142	117	61	320
영재교육원	67				71				84				107			

○ 영재교육 수범사례 확대

- 우수 영재교육기관 평가·지원으로 우리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 모형을 확산

○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영재교육의 지속성 유지

- 영재학교 졸업생에 대한 KAIST 진학, 각 대학별로 해당영역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권장, 해외유학 등 진로대책 수립
- 고등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이에 대한 대학별 선행학습 인정제도(AP: Advanced Placement)채택 등 연계성 확보

<부록 3> 영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 및 인프라 구축

□ 2002년도 추진계획

○ 우수 영재교육 담당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

- 영재학교

-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현재 17%)을 25% 까지 확대
-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박사학위소지자 연구원 4명을 파견
- 소속 교원 전원 국내·외 연수 실시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 우수 교원 배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파견·겸임근무 추진
- 영재교육담당 교원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 의무화
- 한국교육개발원 개발 원격연수 시스템 본격활용

○ 교수·학습자료, 영재판별 도구 등 개발·보급

- 기 개발된 자료의 활용도 제고(인터넷 탑재 등)

* '96-'01 까지 교수·학습자료 30종, 판별도구 42종 등 72종 개발완료

- 영재학교용 전자교재(21개 교과) 개발 및 타 영재교육기관에 보급
-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 판별도구 개발·보급(4종)

○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확충

-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는 반드시 20인 이하로 운영
- 기본시설외에 영재교육 영역별로 필요한 실험·실습실 등 확보

* 영재학교의 경우, 연내 첨단 과학관 건립 및 첨단 기자재 구비 완료

□ 200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 재정 투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비·운영비 등 지원 확대

* 영재학교 등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 ('02-'05, 과기부, 시·도교육청)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합 계
영재학교	26억	54억	100억	100억	280억
영재학급	9.7억	21.2억	30.7억	42.4억	104억
영재교육원	21억	32.9억	38.7억	46.1억	138.7억

○ 우수교원의 확보 및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영재학교의 교원중 박사학위 소지자를 '05까지 50%이상 확보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파견을 지속적으로 확대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직무연수 확대 실시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시계획('02-'05)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합 계
교육부	280	200	200	200	880
시·도교육청	700	1,300	1,500	1,700	5,200
계	980	1,500	1,700	1,900	6,080

○ 교수·학습자료, 판별도구 개발·보급 지속 추진

- '05년까지 교수·학습자료 34종, 판별도구 10종 등 총44종 추가개발

- 영재교육기관간 자료 공유로 자료개발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부록 4> 부산과학고 영재 학교 전환 추진 현황

□ 과학영재학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부, 과기부, 부산교육청, 부산과학고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 ('02. 3. 기 구성)
- 신입생 유치 홍보, 학생선발, 교원 및 학생연수, 과학캠프, 과도기운영계획 등 2003년 개교를 위한 주요 사항 준비 및 점검

□ 학생선발

- 다단계 영재판별법을 통한 전국단위 선발 (144명)
- 전국단위 유치 홍보(4월-5월), 원서 접수(6월), 대상자 확정(8월)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수학과 과학과목 확대(현재 약 50% →70%)
 - 한국과학재단 주관으로 전자교재개발, 학교자체 인정도서 사용
-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 인성교육 강화를 포함한 특별활동, 개인연구, 사사교육 등 실시

□ 교원 및 시설확보

- 2005년까지 전체교원의 50%를 박사학위자로 충원
 -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박사학위자 연구원 4인 파견(4월중)
- 첨단과학관 건립 및 첨단 시설확보(2002년중)

<부록 5> 2002년 전국 영재 학급 운영 계획

□ 영재학급 (초등학교)

교육청	학교명	운영수	대상 (학년)	인원	교육영역	운영 형태	운영 시간	주당 시간	비고 (지원예 산:천원)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0개교	10	4-6	540	수학,과학	단위학교	방과후	2	71,400
광주	수장초 등7개교	28	5-6	560	수학,과학	지역공동	방학중	6	45,000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3개교	3	미정	미정	수학	지역공동	방과후	2	15,000
충북	1개교	2	4-6	60	수학,과학	단위학교	방과후	4	9,950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청림초	3	4-6	30	수학과학	단위학교	방과후	3	1,500
경남	덕계초등	1	6	20	수학과학	단위학교	방과후, 재량활동	3	2,500
제주	-	-	-	-	-	-	-	-	-
계		47		1,210					145,350

▲ 47 학급, 1,210명 대상(강원도논는 인원수 미확정) 예정

▲ 2002년도 시·도예산 145,350천원 지원 예정

□ 영재학급 (중학교)

교육청	학교명	운영수	대상 (학년)	인원	교육영역	운영 형태	운영 시간	주당 시간	비고 (지원예 산:천원)
서울	-	-	-	-	-	-	-	-	-
부산	10개교	56	1-3	280	수학,과학,정보 ,음악,미술,체 육,인문,사회	미정	주말	2	561,015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1개교	1	미정	미정	수학	지역공동	방과후	2	5,000
충북	2개교	2	1-2	120	수학,과학	단위학교	방과후	4	18,870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포철중	1	3	2	과학	단위학교	특별활동	1	600
	송도중	1	3	2	과학	단위학교	특별활동	1	600
	대흥중	1	3	2	과학	단위학교	특별활동	1	600
	환호여중	1	3	2	과학	단위학교	특별활동	1	600
경남	동진중	1	2	20	수학	단위학교	방과후, 제량활동	3	2,500
제주	-	-	-	-	-	-	-	-	-
계		64		428					589,785

▲ 64개 학급, 428명 참여(강원도는 인원수 미확정) 예정

▲ 2002년도 시·도예산 589,785천원 지원 예정

□ 영재학급 (고등학교)

교육청	학교명	운영 수	대상 (학년)	인원	교육 영역	운영 형태	운영 시간	주당 시간	비고 (지원예산: 천원)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대구과학고	5	1-3	100	수학, 과학	지역공동	방과후	6-8	43,000
	대구외고	6	1-2	90	외국어	지역공동	방과후	4	37,000
	경북예고	2	1-2	40	음악 미술	지역공동	방과후	4-6	30,000
	1개교	3	통합	45	정보	지역공동	주말	4	600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충남과학고	2	중1,2	80	수학 과학	지역공동	주말,방학	14	52,280
전북	전북과학고	4	중2,3	80	수학 과학	지역공동	주말,방학	2	70,000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경남과학고	1	1	20	과학	단위학교	방과후	3	2,500
제주	-	-	-	-	-	-	-	-	-
계		23		455					235,380

▲ 23개 학급, 455명 참여 예정

▲ 2002년도 시·도 예산 235,380천원 지원

<부록 6> 2002년 전국 영재교육원 운영 계획

교육청	학교명	운영 수	대상 (학년)	인원	교육영역	운영 시간	주당 시간	비고(지원 예산:천원)
서울	서울과학고	1	중2,3	86	수학,정보	주말,방학중	4	140,000
	한성과학고	1	중2,3	86	과학	주말,방학중	4	142,000
	서울예고	1	중2	40	음악미술	주말,방학중	4	79,000
	선화예고	1	중2	40	음악미술	주말,방학중	4	79,000
	국립국악고	1	중2	20	음악	주말,방학중	4	64,000
부산	과학영재교육센터	1	중1-3	270	수학,과학	원격,방학중	12	166,820
	초등영재교육센터	1	초5,6	540	수학,과학,창작	원격,방학중	12	78,195
	정보영재교육센터	1	초4-6 중1-3	120	정보	원격,출석수업	3	51,486
대구	동부교육청	1	중2-3	160	수학,과학,영어	방과후,방학중	10	270,000
	서부교육청	1	중2-3	80	수학,과학,영어	방과후,방학중	10	145,000
	남부교육청	1	중2-3	80	수학,과학,영어	방과후,방학중	10	153,000
	대구교대	1	초5	40	수학,과학	위탁,주말,방학중	4	80,000
	경북대	1	초5-6 중1,2	186	수학,과학,정보	위탁,주말,방학중	4	50,000
인천	인천영재교육원	1	중1-2	72	수학,과학	방과후	2	9,520
광주	과학영재교실	1	중3	120	과학	방과후	15	40,000
	IT꿈나무교실	1	초중고	120	정보	방과후	2	69,000
대전	동부교육청	1	미정	120	수학과학	방과후	미정	35,120
	서부교육청	1	미정	110	수학과학	방과후	미정	35,120
	시교육청	2	미정	160	수학과학	주말,방학중	미정	30,000
울산	울산영재교육센터	1	중1-2	80	수학,과학	주말,방학중	3	91,000
경기	-	-	-	-	-	-	-	-
강원	교육과학원	2	미정	미정	과학	주말	2	6,320
소계		23		2,530				1,723,672

교육청	교육원명	운영수	대상 (학년)	인원	교육영역	운영 시간	주당 시간	비고 (지원예산: 천원)
충북	-	-	-	-	-	-	-	-
충남	교육청	15	초5,6 중1,2	3,600	수학과학	방과후, 방학중 주말,방 학중	4	85,500
전북	지역영재교육원	12	중1,2	440	과학,수학,영어	방과후, 방학중 주말,방 학중	2	35,000
전남	-	-	-	-	-	-	-	-
경북	교육과학연구원	1	초6,중1 중2,3	60	과학	주말	3	29,832
	경북과학고	1	고1-3	115	수학,과학	주말	6	27,600
	경북외고	1	중2,3 고1-3	107	과학,국어,외 국어	주말	4	19,225
	포항교육청	1	초6, 중1-2	60	과학	방과후	1	2,000
	경북대	1	중1-2	29	수학,과학,정보	주말,방 학중	3	20,000
	대구교대	1	초4-5	40	과학수학	주말,방 학중	3	50,000
	안동과학대	1	초5-6	116	정보	방학중	미정	2,600
	대구대	1	중1-3 고1-2	173	정보	방학중	미정	4,000
	경남	경북과학고	1	중1-3	150	수학 과학	주중	3
마산교육청		1	초중	60	수학 과학	주말	2	20,000
거제교육청		1	초중	64	수학과학	방과후	3	20,000
제주	미정	1	중2	60	수학과학	주말,방 학중	미정	29,800
소계		39		5,074				388,557
계		62		7,524				2,112,229

▲ 62개 연구원(대학부설 연구원 제외), 7,524명 참여(강원도는 인원수 미확정)

▲ 과학기술부가 운영중인 15개 대학부설 영재교육센터 중 2002년도는 5개소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 예정